



보도참고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3. 1. 16.(월)		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	책임자	과장	김혜영	(044-202-3530)
	노인건강과	담당자	사무관	정영미	(044-202-3531)

「치매」 용어 개정을 통한 인식개선 논의 시작

-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3년 1월 16일(월) 오전 10시 「치매용어 개정 협의체」(이하 ‘협의체’)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협의체는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.
- 이번 협의체는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,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.
-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‘치매’라는 용어는 ‘dementia(정신이상)’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하여 ‘癡呆(어리석다 라는 의미)’라는 한자로 옮긴 것으로, 일본에서 전해 받고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되었다.
- 치매 용어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주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용어를 개정하였다.

- 구체적으로 대만은 2001년 실지증(失智症), 일본은 2004년 인지증(認知症), 홍콩과 중국은 2010년 및 2012년 뇌퇴화증(腦退化症)으로 병명을 개정한 바 있다. (붙임2 참고)

- 보건복지부 김혜영 노인건강과장은 “치매 대체 용어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”라고 하면서,
 - “치매 용어 개정이 ‘치매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
1.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개요
 2. 병명 개정 국내외 사례

붙임 1 |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개요

- 일 시 : 2023. 1. 16.(월), 10:00~12:00
- 장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기승플러스빌딩 7층
- 주요 내용
 - ‘치매’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발표 및 논의
- 참석자 : 정부, 의료, 복지-돌봄 관련 전문가 등 (10명 내외)
 - (외부 위원) 학계, 의료계, 돌봄·복지 전문가, 수요자 등
 - (공공 위원) 김혜영 노인건강과장,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 등

진행 순서

시간		내용	비고
10:00~ 10:05	5'	개회 및 위원 소개	간사 (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)
10:05~ 10:15	10'	인사 말씀	위원
10:15~ 11:50	95'	‘치매’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 등 발제 및 주요 사항 논의	
11:50~ 12:00	10'	마무리	

□ 위원 명단

분야	소속	이름	비고
정부 · 공공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	이윤신 (직무대리)	위원장
	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	고임석	
	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	이경희	
의료계	대한의사협회	송성용	
	대한치매학회	이찬녕	
	대한노인정신의학회	김우정	
	대한간호협회	김정옥	
	경북광역치매센터	곽경필	
돌봄 · 복지	이화여자대학교	정순둘	
	국민건강보험공단	유애정	
	한국보건사회연구원	이윤경	
가족 협회	한국치매가족협회	이성희	

※ (간사)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,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

붙임 2

병명 개정 국내외 사례

1 국내 병명 개정 사례

① 정신분열병 → 조현병 (2011)

- '07년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 동호회 주관 병명개정 성명서 '대한정신분열병 학회'로 전달, 관련 학회에서 대체 명칭 공모, 심포지엄, 간담회, 공청회 개최('08~'11), 조현증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('11)

② 간질 → 뇌전증 (2014)

- '05년 간질 전문의 등 주관 간질환자 대상 사회적 차별 등에 관한 조사 ('05~'07), 대한간질학회, 한국간질협회 공동 명칭 공모전 시행('08~'09),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에서 의학용어로 인준('10), 간질 법령용어 뇌전증으로 정비('14)

2 해외 치매 병명 개정 사례

① (일본) 인지증 (認知症) ('04)

- 전문가 중심*으로 치매 용어 변경에 관한 협의 시작, 후생노동성 주도로 병명 개정 검토위원회 구성, 일반국민 의견 수렴 후 병명 개정
- * 노년정신의학을 중심으로 의사, 연구자들이 치매용어 변경에 관한 협의 시작

② (대만) 실지증(失智症) ('01)

- 민간에서부터 90년대부터 '치매증'이라는 용어의 거부감 제기, '01년 정부가 관련법(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)에서 '실지증'으로 개정

③ (홍콩) 뇌퇴화증(腦退化症) ('10)

- 민간에서 '05년 '치매증'에 대한 홍콩 시민의 태도 의견조사, 이후 정부가 '10년 '치매증'에서 '뇌퇴화증'으로 용어 변경('10.10월)
- * 집행위원회 설치, 대체 용어 공모 등 실시

④ (중국) 뇌퇴화증(腦退化症) ('12)

- 민간에서 '12년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후 '치매 용어 개정 제안서'를 의학 용어심사위원회에 제출, '12년 '치매증'에서 '뇌퇴화증'으로 용어 변경

⑤ (미국) 주요신경인지장애(major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s) ('13)

- 정신질환 분류기준인 DSM-5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'Dementia'에서 '주요신경인지장애(major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s)'로 변경